

# 활발해지는 출판인의 저술활동

현장경험과 이론 책으로 엮어... 10여종 나와



남의 원고를 책으로 엮어내는 일을 본업으로 삼던 출판인들이 스스로의 저서를 펴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그래서 출판인의 저술행위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외도'로 여겨질 만큼, 이같은 현상은 이제 겨우 그 조심스런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론, 개화기 이후 100여년의 역사를 갖는 우리 출판계가 최근 들어서야 비로소 그동안의 출판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이론을 출판인 스스로의 손으로 엮어낸 책을 갖게 됐다는 것은 오히려 때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 최고담, 이론서, 수상집으로 대별돼

출판인이 낸 출판에 관한 책은 현재 대략 10여종에 이른다.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출판현장의 회고담을 다룬 책, 둘째가 출판현장의 경험을 통해 구축된 출판이론을 제시한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그때 신문, 잡지 등에 발표한 짤막한 수상을 모은 책이다.

첫째 유형에 속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책이 趙相元씨(현암사 회장)의 「책과 30년」(1974, 현암사)과 李謙魯씨(통문관 대표)의 「通文館 책방비화」(1987, 광우당)이다.

「책과 30년」은 해방 이후 1974년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法典」으로 유명한 현암사를 운영하며 저자가 직접 보고 겪고 느낀 사실들을 기억과 자료에 의거해 모두 10장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특히, 「建國公論」 「韓國文學」을 비롯, 「法典」 「韓國의名著」 「玄岩新書」 등의 출판에 얽힌 이야기가 흥미롭고,

## 출판현장의 회고담,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출판이론, 그리고 기왕에 발표했던 수상 등을 모은 책들로 대별되는 출판인의 저술활동은 아직 일반화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술들을 통해 공개된 경험과 이론체계가 출판문화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출판일반과 독서에 대한 저자 나름의 소견을 피력한 글들도 함께 묶었다.

출판도 겸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인사동 古書房街의 老舖로 이름높은 통문관의 이경로 씨가 잡지 등에 발표했던 기왕의 글들을 다듬고 보충해서 펴낸 「通文館 책방비화」는 주로 고서의 발견과 수집, 판매에 관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휴지더미 속에서 「三·一獨立宣言文」의 원본을 발견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靑丘永言」 「月印釋譜」 등 국보급 도서에 얽힌 경험담이 저자의 해박한 서지학 지식과 함께 흥미롭게 소개되고 있다.

그밖에 출판인 스스로의 저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崔暎海씨(전 正音社 대표, 작고)의 「華甲기념頌辭集」으로 나온 「歲月도江山도」(1974, 정음사)와 鄭鎭肅씨(乙酉文化社 대표)의 「古稀기념」으로 출간된 「出版人鄭鎭肅」(1983, 대한출판문화협회)도 이 범주에 드는 책이라 할 수 있다.

「歲月도江山도」는 조병화, 강주진, 김동리,

오소백, 안춘근 씨등 33명의 시인, 작가, 언론인, 출판인들이 최영해씨의 인간적 면모와 정음사의 출판사업에 얽힌 일화들을 회고하는 글을 함께 묶었다. 「出版人鄭鎭肅」은 정진숙씨의 個人史와 을유문화사의 社史를 병행 기술함으로써 정진숙씨와 을유문화사를 통해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출판이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는 金聖哉씨(一志社 대표)의 「출판의 이론과 실제」(1985, 일지사)를 들 수 있다. 출판계의 손꼽는 이론가로 이미 「알기 쉽게 간동그린 한글맞춤법」(1953, 향문사), 「모범 고전」(1969, 일지사) 등의 저서를 펴낸 바 있는 김성재씨는 이 책을 통해 출판일반에서부터 기획·편집, 조판·인쇄, 교정, 종이·제책, 원가관리·정가, 출판광고·유통에 이르기까지의 해박한 이론을 30여년의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 저작권법 발효에 따라 저작권법 해설 부분을 새로 쓴 개정판을 냈는데, 현재 각 대학의 출판학 강좌의 교재로 수십권씩 단체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의 이론과 실제」가 실무를 위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는 책인데, 반해, 金彦鎬씨(한길사 대표)의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1987, 한길사)는 출판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들을 모은 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시대의 출판운동에 대한 한 출판인의 현장보고」라는 부제대로, 이 책은 특히 우리의 출판문화가 어떤 이념과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 일관된 탐색을 보이고 있다. 「민족출판운동론」 「우리의 책」을 위하여」 등 「출판평론」적인 성격이 강한 글이 많고, 전 동아일보 기자로서 70년대의 언론운동 및 언론과 권력간의 갈등을 규명한 글들도 함께 묶었다.

번역서로는 尹炯斗씨(汎友社 대표)가 편역한 「일본출판물유통」(1988, 범우사)이 있다. 수필가로도 文名을 얻고 있는 윤형두씨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출판경영론을 강의하면서 필요성을 느껴 村上信明의 「出版流通과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편역한 책이다. 유통과정의 정상화가 우리출판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 비추어, 세계에서 제일 이상적인 유통과정을 갖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를 소개함으로써 他山之石으로 삼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출판일반에 관한 짤막한 수상이나 시평 등을 함께 묶은 책들로는 韓萬年씨

(一潮閣 대표)의 「一業一生」(1984, 일조각), 李璟薰씨(普成社 대표)의 「책은 만인의 것」(1984, 보성사), 金英模씨(詩人社 대표)의 「순간의 책 영원의 책」(1986, 시인사), 金永鎭씨(성서교재간행사 대표)의 「책한테 길을 물어」(1987, 현대문학사) 등이 있다.

이 중 「一業一生」은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평생을 출판업에 종사해 온 저자가 30여년간 각종 국내의 紙·誌에 발표했던 글들을 연도순으로 묶었다. 출판시평적인 글이 많고, 日文 및 英文으로 씌어진 것들도 원문대로 수록했다.

「출혈 재직 18년 동안의 기록」이란 부제의 「책은 만인의 것」 역시 해당연도의 출판계 회고를 비롯한 출판시평이 주를 이루는데, 책의 말미에 1945년에서 1982년에 이르는 「韓國出版文化年表」를 상세히 수록, 자료적 가치가 돋보인다.

「순간의 책 영원의 책」 및 「책한테 길을 물어」는 모두 독서수상집. 책의 가치와 독서의 소중함을 선양하고, 독서법과 도서관문화 등에 관해 언급한 글들을 묶었다.

## 출판역량의 상징적 척도

출판인도 「내책」을 내고 있는 현상은, 위에서 보듯 아직 그렇게 광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저술이라 일컬을 만한 책은 드문 것이 또한 사실이다. 대개는 출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얻어진 경험들을 시대순으로, 혹은 주제별로 정리한 책들이 많다.

그러나, 출판인 한 개인의 경험이란 출판사라는 단체의 경험이란 간에, 그것들이 우리 출판문화 전체의 부분집합으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저술들이 갖는 의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우리 출판의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부분부분이 집적되어 여러 특수한 경험들이 하나의 일반적 현상으로 수렴될 때, 출판이론의 정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출판인의 이와 같은 저술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더 권장돼야 하고 또 실현돼야 할 일이다.

출판인이 낸 출판관계 책은, 어쩌면 우리 출판계의 역량을 가늠하는 상징적 척도일 수 있다. —강철주 기자